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석선물세트 출시 크라프트지 상자 및 매직 캡 적용한 포장용기 눈길



심인섭

애경산업(주) 포장개발팀 차장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부분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하나둘씩 챙기며 피곤을 잊고 고향을 찾아간다. 추석이 확실한 대목인 만큼 많은 업체들은 실속있는 추석선물세트를 기획하여 고객에게 어필하고 있다. 최근 애경산업(주) 포장개발팀이 추석을 맞아 다른 타 업체와 차별화 되는 포장상자 재질과 국내 생활용품 시장에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용기 캡을 적용, 생활용품 종합선물세트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애경산업(주) 포장개발팀이 기획한 선물세트를 살펴보면 기존 제품과 달리 각 구성품들의 높이를 통일하여 포장공간비율을 23%(법규기준 25%이내)로 최소화하였고, 이에 걸맞게 샴푸 및 린스 등의 용기를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해 새롭게 바꿈으로써 신선함을 더했다. 또한 포장상자의 재질을 기존 SC 마닐라지에서 크라프트지로 변경, 불필요한 인쇄와 라미네이팅을 빼고 약 9억2천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보았다.

애경산업(주) 포장개발팀 심인섭 차장은 “타 업체와 차별화되는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재생지 느낌을 줄 수 있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하게 됐다”며 “실제 재생지 적용을 고려했지만 통일된 인쇄가 어려워 크라프트지 본연의 황색상으로 재생지 느낌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애경 추석선물세트가 주목을 끌만한 부분은 샴푸, 린스 등에 사용된 일명 ‘매직 캡’을 적용한 것. 매직 캡은 기존 수동 펌프식 장치를 대신하여 내용물



▲ 크라프트지를 사용한 포장상자와 '매직 캡'을 적용한 케라시스 용기

의 정량도출 밸브를 적용, 밸브의 중앙부위에 개폐홈이 나 있어 용기에 압력을 가하면 실리콘 밸브의 유연성 측면부가 역전되어 개폐홈이 열리면서 내용물이 토출되고, 압력 해제시 개폐홈이 닫히면 원상태로 돌아와 밀봉상태가 된다. 또한 캡을 초기 한번만 열어 젖혀서 고정시키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했다.

심 차장은 “이번 추석선물세트에 기획된 샴푸, 린스 등은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매직 캡 적용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차장은 이번 추석선물세트에 매직 캡을 적용한 배경에 대해서 “포장공간비율에 저하요인이 되는 케라시스250 원형용기 타입을 비누, 치약류와 동일한 Oval 타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수동펌프를 대체할 수 있는 고기능성 자기 밀봉형 디스펜싱 밸브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외국 제품에 이미 적용됐던 사례를 참고로 생활용품에 매직 캡을 접목시킨 애경 포장개발팀은 추후 샴푸, 린스 뿐 아니라 헤어, 바

디, 주방용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심 차장은 “이번에 기획된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아직 생소한 용기로 사용 방법과 효과가 기존 제품과 틀려 사용자가 혼동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만큼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애경 영업팀원들은 직접 대형마트 및 백화점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매직 캡 사용 방법과 편리성을 홍보하고 타 업체 제품과의 차별화를 공략할 예정이다.

애경 포장개발팀은 회사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항상 고객 편의를 생각하며 신개념 포장용기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심 차장은 “앞으로 포장개발팀은 회사의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사용자의 편리함을 바탕으로 포장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애경산업(주) 포장개발팀. 편리성과 신선함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포장개발에 힘쓰며 업계를 선도하길 기대 해 본다. [ko]

이한얼 기자